

교회목표

- 1. 천국일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오늘은 맥추감사주일로 지켜

저녁7시 특별순서도 가질 예정

여호와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교회는 오늘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며, 특별감사헌금도 바치게 된다.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역사적 큰 절기 중의 하나인 맥추절은 칠칠절, 오순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웠다.

한편 저녁 7시 찬양예배 때는 영아부에서 주관하는 특별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지난 주일 찬양예배시 홍해작전 승전보고



우리 교회는 지난 6월 24일 저녁 7시 본당에서 제3차 홍해작전 승전감사예배를 드렸다.
김성윤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이종운 위임목사는 설교를 통해 “홍해를 건넌 우리들은 사명감을 갖고 열매를 맺는 능력의 천국시민이 되자.”고 전했다.
이 시간에는 작전 기간 동안 성도들이 절제하고 금식하여 드린 절제헌금을 장학금으로 사용토록

밀알선교회에 기탁하였다.
이어서 윤성철 장로는 승전 보고를 하면서 이 작전을 승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한편 이번 작전을 단순히 기도운동의 차원으로 끝내지 않고 사회 개혁 운동으로 승화시키려는 충현 성도들의 의지를 담은 호소문을 정부와 국민 앞에 발표했다.

절제운동 추진본부 설치

우리 교회 당회는 지난 제3차 홍해작전 중 체득한 절제 생활을 교회에서 뿐 아니라, 사회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절제운동 추진 본부를 설치키로 하고, 본부장에 이종운 위임목사, 운영위원장에 우기진 장로, 위원에 송태근 목사, 김영개 장로, 손동운 장로, 박철훈 장로, 오정수 장로, 김재명 장로, 윤성철 장로를 각각 임명했다.

초등2부

가족찬양부르기대회 열어

초등2부는 지난 6월 24일 오후 3시에 가족찬양부르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초등2부 학생들이 할아버지로부터 어린 동생들과 함께 대회에 참가하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90년도 여름 계절학교 일정 발표

지난 6월 6일 새가정부가 90년도 여름계절학교를 개최한 이래 우리 교회 교회학교 각 부서는 기도원에서 아래와 같이 계절학교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	서	주	제	실시기간	실시장소	강사	부	서	주	제	실시기간	실시장소	강사
영아부		사랑의 나라		7.24~25	아벤홀	정연희	청년2부		하나님의 뜻과 자화상을 찾아서		7.15~18	충현기도원	김정우 성주진
유치부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이		7.23~25	소석관107,205호	김정자	장년1부		그리스도의 신앙을 실천하자		7.16~17	충현기도원	이조웅 김주아
초등1부		믿음으로 자라가는 어린이		7.23~25	소석관212호	한용관	장년2부		성숙한 천국시민이 되자		8.17~18	충현기도원	박형용
초등2부		순종하는 어린이		7.23~25	소석관314호	김경성	장년3부		사랑과 봉사		7.12~13	충현기도원	윤영탁
초등3부		하늘나라 어린이 생활		7.23~25	소석관307호	김연이	장년4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자		8.14~15	충현기도원	정규남
초등4부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7.23~25	소석관114호	장재순	소망부		함께 여호와를 알자		8.17~18	갈릴리홀	김학진
초등5부		믿음이 자라나는 어린이		7.26~28	소석관407호	정복인	직전부		비가 어디있느냐		8.2~4	충현기도원	김광석
초등6부		구원의 기쁨을 가진 어린이		7.23~25	충현기도원	김창수	새가정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6.6	충현기도원	최인근
중등부		보라새 비전을 이 보배를 절그릇에		7.25~28	충현기도원	김광석 정기봉	사랑부		천국		7.17	소석관107호	김동열
고등부		지금의 기도할 때		7.24~27	연세대 원주캠퍼스	송태근	에바다부		항상 기뻐하라		7.23~24	충현기도원	김성윤
대학부		하나님의 뜻과 자화상을 찾아서		7.9~13	충현기도원	성주진	영어주교				8.15~16	충현기도원	
청년1부				7.15~18	충현기도원	김정우 성주진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제3차 홍해작전에 참전하여 승리하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신문에서 우리 교회의 천국시민 생활운동을 21세기 청교도운동이라고 호칭하면서 오늘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일을 필요한 시기에 일으켰다고 극찬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이웃에게 봉사하려면 자기 절제는 필연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그러하지 못했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앞으로 더 많은 봉사를 하기 위해 우리 교회내에서 절제운동본부를 설치하여 천국시민의 일상 생활을 지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우리 교회 성도뿐 아니라, 한국의 일천만 기독교인들이 함께 이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오늘의 난국을 극복함은 물론 민족과 국가 미래에 큰 희망의 등불을 비춰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충현의 가족들은 광야 생활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약속과 진리와 성결을 잊지 말고 계속 매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990. 7. 1
이 중 윤 목사

요한전도회 제11지회 자녀교육 위한 특강 가져



특강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요한전도회 제11지회는 지난 6월 23일 오후 6시에 강동구 구민회관에서 특강을 열었다.

김동열 목사를 모시고 예배를 드린 후 현직 국민학교 교사인 정일섭 회원이 “바람직한 자녀 교육”이라는 특강을 했다.

이 특강을 통해 회원들은 부모들의 잘못된 교육이나 관심의 정도가 어린이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피면서 믿음과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다짐했다.

《만나고 싶은 사람》에 이종운 위임목사 소개

월간 신앙세계출판국은 한국 사회의 지도자 43인을 선정하여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책의 책을 지난 4월에 출판하였다. 그 중 우리 교회 이종운 목사를 신학자요, 목회자며 선교에 헌신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소개했다.

유타대학 체이스 총장 내교



이종운 위임목사가 J.R. 체이스 박사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미국의 명문 유타대학 J.R. 체이스 총장과 J.스태무스 동교대학원장이 이종운 위임목사의 초청으로 지난 6월 19일 한국을 방문하여, 10일간 국내 교계와 교육계를 시찰하고 교계 지도자들과 미래 세계 지도자 양성에 대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였다.
우리 교회는 미래 선교사역에 헌신할 국제적인 인물 양성을 위해 체이스 총장에게 미화 5천 불을 장학금으로 전달하였으며, 지난 27일에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도 7천 불을 보냈다.

초등3부 지도교역자 정기봉 목사로 변경

당회는 그 동안 김연이 전도사가 지도해 오던 초등3부를 7월부터는 정기봉 목사가 지도하도록 했다.



제3차 흥해작전

이 중 윤 목사

비상새벽기도회 설교 요지

우리들은 흔히 다른 의도를 가지고 주를 외치고 우리의 지식으로 만든 주를 생각하고 주를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주님을 찾지 못하고 피상적인 것에 빠져 기독교적 미신으로 타락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는 신앙 고백이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여 외쳤는데, 구원이 없다면 그것은 위선자의 외침이고 잘못된 개념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뜻을 행치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로만의 순종이고 행동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은 악을 행한 자,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을 불의, 불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대접했는가. 주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 우리의 생활에서 주님이 어느 위치에 계셨던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마 7:24~27)

둘째, 우리의 순종이 지적인 것에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지식으로만 알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처음에 보기에는 구별이 안나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구별이 됩니다. 듣는 지식으로만 안됩니다.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듣고서 고백해야 되고 고백한 대로 행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시대에 바르게 빛을 비추지 못하면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열넷째날

그리스도인의
참된 헌신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23)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는 순종과 불순종 중에서 선택을 하라는 요청이고, 둘째는 선택을 할 때에는 순종을 택하라는 요청입니다. 이 말씀은 산상보훈의 총 결론에 해당될 것입니다.

첫째로, 입술로만 하는 순종의 위험을 피하며, 우리에게 말로만 ‘주여, 주여’라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라는 말은 이방인도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이방인이 부르는 주와 그리스도인이 부르는 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열다섯째날

산상보훈을 주신
예수는 어떤 분인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 7:28, 29)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산상보훈을 듣고 무리들과 제자들은 놀랐다고 마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2천 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놀랐습니다.

산상보훈을 하신 예수님은 교사로서의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풍성하고 절대적이며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과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며 말씀을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서기관들은 권위로 가르쳤으나,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시고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요 7:16) 권위가 있고 가치가 있으며,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는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 5:17).

예수님은 구원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구원의 방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바르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축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를, 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과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구원을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서의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못들어가게 하는 결정권이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심판의 규범이 되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산상보훈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인간들의 모든 요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시면서 우리들에게 바른 신관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승전감사예배

그 어디나 하늘나라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행 9:32~35)

우리는 흥해작전 동안에 천국시민의 생활을 배우며 실천하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길 기도했던 지난 15일간 많은 기도 제목을 우리는 성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천국시민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찬송하며 살 수 있을지 생각하길 원합니다.

첫째, 사명감 있는 사람이 이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역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32절에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방을 헤매며 바쁘게 일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담대하고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팔을 펴면 구제요, 입을 열면 기도와 복음이 나갔습니다. 이같이 사명자는 사방으로 부단히 일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자입니다. 베드로의 행동범위가 넓고, 사역이 다양하고, 사고가 깊은 것은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힘이 들어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되어 일하며 성패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는 사명, 하

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시민된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사람으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이뤘습니다. 룻다에 전도하러 와서 8년된 중풍병자 에니아를 예수님 이름으로 즉석에서 고쳤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른 낮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였습니다. 병고침은 의사의 도움을 받지만 낮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주의 권능을 일으키는 베드로와 같은 능력의 사람이 될 때 그는 어디서나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천국시민으로서 세상의 보잘 것 없는 것을 가지고도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 기도, 말씀, 사랑, 소망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하고 사명감 넘치는 행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함으로, 룻다와 사론 사람이 다 주께로 돌아왔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고 사명따라 일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룻다와 사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열매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권능을 갖고 땅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수없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나라와 사회와 교회가 변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열매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김광신: 우선 이번 홍해작전의 의미와 개요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김학진: 지난 88년 이래 우리 총현교회는 매년 6월 6일이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회를 실시해 왔습니다. 현충일을 기해 홍해작전을 전개하는 것은 나라의 아픔을 통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홍해작전은 개인적으로는 회개운동이고, 교회적으로는 갱신운동이며, 사회적으로는 개혁운동입니다.

올해에는 특히 지난 두 차례에 걸쳐 이룩한 영적 각성을 말씀과 기도로 지속시키고 전국시민으로서 소금과 빛의 생활운동을 전개하며 2천 년대의 성숙한 교회상과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초점을 두고 홍해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우기전: 네, 그런 목적 아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2천년대를 향한 전국시민 생활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교회는 “힘을 다해 예배드리고, 절제하고, 봉사하자”는 실천강령과 기도 제목도 발표했죠.

김광신: 이번 홍해작전이 지난 1, 2차 때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던데요.

우기전: 성도들의 많은 참여가 이번 제3차 홍해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작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4,433명이 비산새벽기도회에 참여했으니까요. 또 제2차 총동원의 날(17일)에는 9,000명이 새벽에 나와서 일시에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에 임했습니다.

이는 교회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일 것입니다.

나눔의 센터에 답지한 물품 수량은 5,590점, 나눠 가진 물품의 수량은 4,966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눔의 센터에 대해 여러 가지 회의적인 문제들을 제기하였으나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협조,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한 증거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선: 저는 1차 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홍해작전에 참가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성도들의 힘이 컸습니다. 성도들이 시간에 맞추어 열심히 참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자극을 받았으니까요. 이처럼 성도들 사이에 서로 독려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있었기에 이 작전

홍해작전에 매일 참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홍해작전이 끝난 요즘은 남편에게 이끌려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작전 기간 중 기도회가 끝나고 2시간이 넘도록 해야 하는 식당 봉사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손 철: 저는 이번 작전을 시작한다는 말을 듣고 과연 성공할

우기전: 직장전도교육부는 홍해작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자체 내에서 실천강령을 수립하고, 이 운동을 직장으로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세태를 한탄하는 데서 그치는 데 비해, 젊은이들의 이런 용기 있고 실천력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소망스러웠습니다.

김광신: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이 홍해작전에 임하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들도 있었을 텐데요.

김학진: 홍해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저녁집회를 갖는다거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고충을 이해하면서 격려해줄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기전: 홍해작전의 마지막 날을 주일에 맞추어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진: 청년부가 교구대에 전혀 소속되어 있지 않아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김원선: 주차 문제를 비롯한 차량질서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유호순: 루디아전도회에서 식당 봉사를 담당했는데, 등교시켜야 할 자녀를 둔 회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봉사하는 데 무척 애로가 많았어요. 내년에는 이런 점도 배려하여 봉사팀을 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김광신: 내년도 홍해작전에는 하나님께서 더욱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상상하지 못했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작전 평가 좌담

홍해작전은 회개·갱신·개혁운동

참석: 우기전 장로, 김원선 장로, 김학진 목사, 손 철 집사, 유호순 집사, 김태진 성도, 김요섭 학생

사회: 김광신 장로
일시: 6.24 오후 3시
장소: 선교관 401호



김광신: 홍해작전 승전기념 돌성경을 봉헌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의 응답으로 사랑의 집 건축을 기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번 홍해작전이 성공했다는 가시적 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기전: 제1차 총동원의 날에는 1,500명이 나와서 교회 안팎을 청소하면서 봉사 생활을 몸소 실천했다는 것도 커다란 성과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김광신: 홍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4천명이 넘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매일 새벽기도회에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김요섭: 이 작전이 절제와 봉사생활을 실천하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운동이라는 것을 알고 젊은이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또 실천강령만을 외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안일한 생활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영성잔치를 통해 사회에 산재해 있는 갖가지 문제를 지적하여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김광신: 홍해작전을 실시하면서 변화된 부분도 상당할 텐데요.

유호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나를 몹시 꾀박하던 남편과 함께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성도들이 새벽기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나와서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시대를 앞서가는 말씀을 들으면서 실생활에서 그것을 적용해 나가야 하리라고 다짐했습니다.

김태진: 직장에 다니면서 참석하다보니 솔직히 육신적으로는 무척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을 치른 후에는 경건의 시간을 매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홍해작전은 신앙 훈련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명하시며 심방과 전도를 권하셨습니다. 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축복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요한 심방을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방을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1절 이하에서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나눠주고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이 심방의 목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심방을 갔을 때 고넬료는 일가와 친구와 온 가족을 모아 놓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방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이 임했던 것입니다.

총현교회는 전통 있는 교회로서 심방의 중요성을 알고 매우 귀중하게 여기는 전통이 세워져 있습니다. 심

방 다니면서 느낀 점은 믿음이 적은 가정일수록 심방을 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심방을 귀중하게 여기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심방 전도자는 복을 받고 그 복이 임할 만하면 그 가정에 임할 것이요 받을 믿음이 없으면 돌아올 것이라 했던 것입니다.

심방을 통해서 가정 형편을 알게 되고 형편에 따라서 성경 말씀과 축복기도를 하게 되고 여러가지 대화 속에 진교와 위로와 교훈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고 주께 됴으로써 더욱 믿음에 굳게 서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며 권면하게 되므로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구역의 조직과 구역의 활동을 점검하게 되고 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유익하게 됩니다.

심방은 목회자의 심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역의 심방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구역은 구역의 일꾼들이 열심히 있고 잘하여서 구역이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구역 일꾼이 잘못하면 구역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역장을 잘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회 부흥의 열쇠는 심방하며 전도하는 것이 강단을 통한 복음 선포와 교육과 더불어 중요한 것을 실감케 되는 것입니다.

다음호 세기등은 김영구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세기등

심방이 주는 교훈



이 세 열 목사

목회사역을 크게 예배와 교육과 심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김창인 목사님이 쓰신 《구역장과 심방》에 의하면 한국 교회 부흥의 요인이 해방 이전에는 사경회, 개인 전도였으나, 해방 이후에는 강단을 중심으로 한 새벽기도와 심방전도입니다.

강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증거나 교회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심방은 교회 부흥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심방이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던 사건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타락한 인간들에게 성육신하시어 찾아오셨습

간증

사랑의 하나님



양 승 남 집사

친구를 따라 다니게 된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님의 살뜰한 신앙 지도를 받으며 자랐다.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는 동안 믿음을 깊은 곳에 묻어버리고 동생들 뒷바라지와 집안일에만 열중했다.

그 무렵 친구 어머니께서 친구 삼촌을 소개해 주어 서울과 대전을 오가며 결혼을 약속하고 미래를 설계했다. 무엇에나 자신감이 넘쳐 있는 신랑감을 든든히 믿으며 온 집안 식구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했다. 남편은 생활에 성실했지만 신혼의 행복은 잠시 뿐이었고, 내 마음속에는 평안과 기쁨이 사라졌다. 7남매의 막내며느리이면서도 시집 온 날부터 시부모님을 모시기에 힘이 들었고 갈끔한 남편 성격은 더더욱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 아이들은 태어나는 대로 모두 하나같이 병약하고 번갈아가며 병원다니고 입원하는 일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나는 사는 게 괴롭기만 하고 날개가 달렸다면 어디론가 훨훨 날아가 버리고만 싶었다.

우리는 경기도 원당으로 새집을 지어 이사를 갔다. 대문을 크게 달고 정원을 만들어 잔디도 심으며 집을 예쁘게 단장했다.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했지만 나는 전혀 즐겁지 않았다. 그래서 혼자처럼 누렇게 뜨고 치장도 하지 않아 흉한 물골을 하고 지냈다. 옆집 사는 원당교회 집사님이 놀러 왔다가 이런 내모습을 보고 '동현이 엄마 예수 믿어.'라고 했다. 이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깬듯

놀라며 '하나님이 무서워요. 아마 저를 버리셨을 거예요.' 라고 했다. 그러자 내 손을 포옥 잡은 집사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돌아오라고 권고했다.

조용한 시간을 내어 오랜만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렀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주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저를 이 고통에서 구해주세요."

그 순간 무거운 머리가 가벼워지는 듯 하면서 막혔던 가슴이 후련해지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었다. 그후 가까운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시부모님과 남편의 핍박이 대단했다. 그런 핍박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기만 기도했다.

3년의 세월이 지났다. 남편의 사업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자신 만만하던 남편은 점점 패기를 잃어 갔다. 그때 나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남편을 구원해 주실 때라는 확신이 생겼다.

소망부 성경퀴즈대회 가져

소망부는 지난 6월 24일 오후 12시 30분에 갈릴리 홀에서 성경퀴즈대회를 개최했다.

약 32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대회의 출제범위는 요한계시록으로 등록 인원 전체가 참가하여 열띤 경쟁

다. 어려워진 살림이지만 물질의 도우심보다는 남편과 식구들의 영혼만 구원해주시면 더 이상의 기쁨이 없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절망해 있을 때, 온 가족이 충현교회 집사인 남편 친구의 전도로 충현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셨다. 순종하면 영육의 복을 주시고 불순종할 때는 징계와 말씀으로 철저한 훈련을 시켰던 것이다.

마음이 괴로울 때는 예수님에게 발목이 묶여 있어 도망갈 수도 없게 되었다고 푸념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친구와 세상의 즐거움을 모두 끊어버리게 되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사건마다 간증이 되어 차곡차곡 내 마음속에 쌓여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다 해도 주님 안 계시면 평안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평안과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을 벌였다. 참가자 모두는 문제를 진지하게 풀어나가면서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대상은 김옥순 권사가 차지했다.

요한전도회 제1지회는 지난 6월 24일 주일 오후 3시에 역촌동에 있는 서대문시립병원을 방문했다.

요한전도회 제1지회는 그곳의 사정을 감안해서 라면 150박스, 휴지 150개, 비닐, 마대, 쌀, 그리고 지난번 나눔의 센터에서 남은 의류 200점을 구제위원회의 협력으로 준비, 전달했다.

서대문시립병원은 주로 거리의 무의탁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데 대부분 결핵, 장티푸스 등의 전염병 환자들이다. 이러한 무의탁 환자들이 병원에 수용될 경우 국가에서는 2년간 치료약과 약간의 생활품을 지원하게 된다.

허용하지 않게 되었고 60, 70년대에 지어진 가구에 한해 아파트 입주권을 주게 되었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권을 가진 이들의 대부분은 생활 능력이 없어 이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했고 결국에는 그 판자집마저 월 25,000원의 월세로 세들어 살고 있는 형편이다.

병원 내에 있는 베테스다교회에서 시무하시는 목사님께서서는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있어서 생존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실감케 하였다.

결핵으로 인해 독한 항생제를 장기 복용하는 이곳 환자들에게

무의탁 환자에게 사랑 전한 요한전도회 제1지회



회원들은 병원 구내에 있는 베테스다교회에서 환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2년간의 의무 치료 후 퇴원하게 되는 환자들은 병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로 쫓겨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설사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투병 생활 중에 가족들이 모두 떠나버리므로 그들은 연고지도 보호자도 없게 된다.

이러한 환자들은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병원 옆의 그린벨트 지역에 무허가 판자집을 짓고 살고 있다. 수용시설에 수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 무의탁 환자들은 이 판자촌에서 살기를 위해 무허가 판자촌이 계속 늘어나게 되자, 정부에서는 150가구 이상의 증축을

는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수적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결핵보다는 합병증으로 대부분 목숨을 잃는다.

우리 주변에는 구제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너무 많다.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난제들을 그리스도의 힘으로 해결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도 못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 좀 더 큰, 효과적인 지원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우리 충현의 식구들은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범들을 보이도록 노력해야겠다.

설 명

제8계명은 우리 자신과 타인의 재산과 산업에 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얻고 산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 즉 도적질, 사기, 노름, 투기, 고리대금, 마술, 매점매석, 인신매매(출 21:16), 뇌물, 착취 등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행위임을 명시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근면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통해 가난한 자들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할 책임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질 문

1.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태도로 재물을 얻으라고 합니까(시 128:2; 잠 10:4, 31:16; 살후 3:8; 딤후 2:9)?
2.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거나 산업을 경영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출 21:16; 잠 28:22~24; 암 8:4~7)?
3. 어떻게 하면 제8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지 의논해 봅시다(레 25:14; 시 15:4; 잠 11:24, 25; 고전 6:7; 약 2:15, 16).

한다락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27 과 제 8 계명

성경 : 출 20:15, 22:1~4

요절 :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재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엡 4:28)

찬송 : 217, 489

제 73 문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 74 문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와 남의 재산과 산업을 획득하고 또한 그것들을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제 75 문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재산과 산업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될 만한 일을 금하는 것입니다.